해외경제정보

2008. 2. 28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파키스탄, 총선 결과와 향후 정국 전망

1. 총선 결과

□ 야당의 압도적 승리

- 지난 2월 18일 실시된 파키스탄 총선에서 부토 전 총리가 이끌던 파키스탄인민당(Pakistan People's Party; PPP)이 총 268개 연방하원 의석 중 88석을 차지하였고, 샤리프 전 총리의 파키스탄무슬림리그(Pakistan Muslim League-Nawaz; PML-N)가 66석을 확보하면서, 38석을 차지한 무샤라프 정권의 파키스탄무슬림리그(Pakistan Muslim League-Quaid-e-Azam; PML-Q)에 대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음.

* 이외 카라치 지역당인 무타히다 민족운동(Mutahidda Qaumi Mouvement; MQM)은 19석, 파슈툰계 민족정당인 아와미국민당(Awami National Party; ANP)은 10석을 획득하였음.

- 초우더리 수자트 후세인 PML-Q 총재, 아미르 후세인 전 국회의장 등 현 정권에서 각료 등 정부 고위직을 지냈던 친 무샤라프 핵심 인사들이 대거 탈락하는 등 여당은 이번 총선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부진한 결과를 거두었음. 한편, 이는 이번 선거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함.

□ PML-N의 기대 이상 선전

- PPP는 부토 전 총리에 대한 동정표 효과가 당초 기대보다 크게 나타나지 않아 88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는데, 이는 부토가 미국의 중재 하에 무샤라프와 권력 분점을 시도했었다는 점과 현재 당의장인 부토의 남편 알리 자르다리의 부정부패 이미지가 민심 획득에 장애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2002년 총선에서 19석을 확보했던 PML-N은 이번 총선에서 세배가 넘는 66석을 확보하며 '총선의 숨은 승리자'로 평가받고 있는데, 당을 이끌고 있는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의 무샤라프에 대한 강경한 대응 전략이 반 무샤라프 정서가 강하게 형성된 민심을 효과적으로 공략한 것으로 분석됨.

□ 야당의 연정 구성 합의

- PPP의 자르다리 의장과 PML-N의 샤리프 총리는 2월 21일 총선 이후 처음으로 회동을 갖고 연립정부 구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이후 10석을 차지한 ANP도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하였음. 3개 정당은 2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선이 확정된 265명 가운데 3개 정당의 당선자와 무소속 당선자들을 포함해 총 177석을 확보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야당이 3분의 2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무샤라프 대통령 탄핵, 무샤라프가 선포한 국가비상사태 및 임시헌법령의 무효화 등이 가능하게 되었음. 또한 3개 정당이 차기 총리 지명권을 PPP가 갖는다는 것에 합의함에 따라, PPP 당선자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총리 후보로 선출된 마크둠 아민 파힘 부의장이 차기 총리직에 오를 것으로 보임.

- PPP와 PML-N은 원칙적으로 연정 구성에는 합의하였지만, 중요 현안에 대해서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하고 있어 향후 순조로운 연립정부 운영에 우려가 높은 실정임. PML-N측은 무샤라프의 사퇴를 촉구하며 향후 탄핵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으나, PPP측은 무샤라프 탄핵에 대해 소극적

인 입장을 보이며, 최근에는 무샤라프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음.

파키스탄 주요 정국 일지

일자	주요 내용
1999년 10월	나와즈 사리프 총리 축출 후, 쿠데타로 무샤라프 집권
2002년 5월	무샤라프, 대통령, 총리, 육군참모총장 등을 겸임
2007년 3월	이프티카르 초우더리 대법원장의 직무 정지
2007년 10월 5일	무샤라프, 제1야당 지도자 부토와 권력 분점 합의
2007년 10월 6일	무샤라프, 간접선거를 통한 대선에서 압승
2007년 10월 18일	부토 귀국 행사에서 폭탄 테러 발생, 130여명 사망
2007년 11월 3일	무샤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2007년 12월 15일	무샤라프, 국가비상사태 해제
2007년 12월 27일	부토, 자살 폭탄 테러로 사망
2008년 2월 18일	PPP, PML-N 등 야당, 총선에서 압승 거둠

2. 무샤라프 정권 패배의 배경

□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반감

- 무샤라프에 의해 지속되어온 정국 혼란에 대한 파키스탄 국민들의 분노가 부토 사망 이후 반 무샤라프 정서를 더욱 확대시켰으며, 이는 무샤라프를 지지해온 미국에 대한 비판과 불신과도 연계됨.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 대다수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면서도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찬성이 9%로 매우 낮게 나타남.

- 무샤라프 진영의 총선 패배 이후, 탈레반측은 야당의 승리를 환영하며 정부의 분리주의 무장세력에 대한 군사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협상

의 가능성을 언급하였음. 이에 야당세력들도 아프간 접경시대에서의 정부의 군사행동이 치안과 경제를 악화시켰으며, 전투보다는 대화와 경제적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파키스탄의 대테러 전략 방향이 주목받고 있음.

□ 최근 경제불안도 무샤라프 정권 패배의 원인으로 작용

- 무샤라프는 집권 기간 동안 미국의 대규모 원조를 이끌어 오며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지만, 최근의 불안한 경제상황은 부토 사망 이후 확대된 반 무샤라프 정서에 더해져 총선에서 여당 패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파키스탄 물가는 연료가격과 식료품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압력을 받고 있으며, 특히 곡물 가격은 2007년 11월 이후 무려 20% 정도 상승하였음. 또한 파키스탄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방직업은 전력과 천연가스 공급 부족으로 인해 경쟁국인 인도와 중국에 주문물량을 빼앗기고 있음.

3. 향후 정국 전망

□ 야당 주도의 연립 정부, 불안한 공조관계 전망

- PPP와 PML-N은 무샤라프 정권에 대항해서 원칙적으로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했지만, 기본적인 정치 이념과 정책의 차이, 과거 정치적 경쟁자로 지내며 쌓인 앙금들, 중요 현안에 대한 견해차 등으로 인해 향후 순조로운 연립정부 운영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PPP는 자유적이고 서구 지향적인 반면, PML-N은 보수적이고 이슬람 세력들에게 우호적인 성향을 보임.

- 한편, 무샤라프의 의회해산권 사용 가능성이 새로운 연립정부의 운영에 위협이 될 수 있음에 따라, PML-N은 지속적으로 무샤라프의 탄핵을 주

장하고 있지만, PPP는 미국의 압력, 무샤라프의 반발과 군의 개입으로 인한 정국 혼란 가능성 등을 우려해 탄핵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두 당의 입장차가 크고 결속력이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공조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으며 그럴수록 무샤라프의 정치적 생존 가능성과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됨.

□ 미국, 새로운 파트너 모색 가능성 증가

- 파키스탄을 테러와의 전쟁의 동반자로 삼고 파트너인 무샤라프를 적극 지원하였던 미국은 총선에서 반 무샤라프 진영이 승리하면서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졌음.

- 기본적으로 미국은 무샤라프와 야당의 친미 연정 구도 성립을 바라고 있으나, 무샤라프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강하고 무샤라프가 대통령직을 유지하더라도 실질적 영향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국은 야당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한편, 새로운 파트너 찾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미국은 무샤라프와 권력 분점을 시도하는 부토를 지원하는 등 PPP와 우호적 관계를 맺어 왔으나, 자르다리가 부토와 같은 성향을 보일 지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임. 한편, PML-N의 샤리프 전 총리와 미국간의 관계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미국은 샤리프의 이슬람 급진세력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불신하고 있고, 샤리프 역시 과거 망명 당시 자신의 복권을 지지하지 않은 미국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어 향후 관계 개선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일부에서는 아시파크 키야니 파키스탄 군 참모총장을 새로운 미국의 파트너로 거론하고 있음. 키야니 총장은 정치 중립을 지키며 무샤라프 대통령과 거리를 유지해 왔고 국민들의 신임도 높기 때문에, 정정 불안을 방지하고 새 내각과 우호적 관계 구축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 적임자라는 분석임.

□ 무샤라프의 실질적 영향력 크게 약화 전망

- 야당의 지속적인 탄핵 시도 움직임과 함께 최근에는 무샤라프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대내외 압력이 커지고 있는 등 무샤라프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약화되고 있음.

- 하지만 탄핵으로 무샤라프를 축출하면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기 보다는 야당 세력의 주도 하에 무샤라프의 협력을 유도하여, 정국 안정을 이루어 내고 미국 등 외부와의 관계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국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야당과 무샤라프의 공조가 이루어진다면 강력한 정치적 반발과 대규모 국민 시위발생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샤라프가 의회 해산권을 사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군부는 현재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야당이 빠른 속도로 무샤라프에 대한 공격을 진행한다면 이에 대한 반발로 무샤라프와 손을 잡고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 당분간 정국 혼란 지속 예상

- 야당측이 연정 구성에 합의하였지만 무샤라프 탄핵 처리 문제 등 몇 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 견해차를 보이고 있고, 기본적인 정책 노선에 차이가 커 향후 연정 운영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임. 또한 상황에 따라 무샤라프와 군부의 극단적인 대응이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하는 등 파키스탄의 정치적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김응화]